



## 아름조경을 찾아서 ...

명품 소나무 도로를 강릉 입구 관문에 멋지게 조성하여  
일약 대형 장송 조경의 최고 실력가로  
떠오른 최칠길 사장의 아름 조경을 찾았다.

글 | 사진 : 사진작가 김해웅

아름조경의 자랑 금강송포지



최칠길  
(아름조경 대표)

### 소나무의 고장 강릉

태백준령의 웅장한 산과 푸른 동해 바다, 그리고 많은 유적들과 이름난 명승지가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지로 영동지방 산업, 행정, 교육의 중심지인 강릉. 이렇게 이름난 강릉에서 옛부터 제일 흔하고 많은 것 3가지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첫째가 강릉김씨, 둘째가 강릉최씨, 그리고 셋번째가 소나무라는 소나무의 고장 강릉.

이렇듯 강릉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대관령 소나무 숲을 비롯하여 험준한 산악지대부터 해안가 모래사장까지 주택가는 물론 논밭두렁 어디를 가나 온통 아름드리 소나무들로 가히 소나무 고장이라고 할 만하다. 이런 소나무 도시의 새로운 상징물인 명품 소나무 도로를 강릉 입구 관문에 멋지게 조성하여 일약 대형 장송 조경의 최고 실력가로 떠오른 최칠길 사장의 아름조경을 찾았다.



해살이마을과 백두대간



처음 조경수를 재배한 고향마을 포지



이름조경의 작은 연못

### 고집불통 막내의 조경수 파종

그의 고향은 강릉 남대천 남쪽의 강릉시 입암동으로 시내와는 약3km정도 떨어진 야트막한 산자락 아래 한적한 시골마을이다. 1952년도에 아들만 일곱인 칠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출생신고를 부탁받은 동네 이장이 부모님이 작명한 이름을 까먹고 일곱 번째 아들이라고 칠길(七吉)이라고 하였단다.

1971년도에 강릉상고를 졸업하였으나 어찌다가 취업 기회를 놓치고 집에서 농사일을 거들면서 매년 파분하게 곡식 농사만 하는 것 보다 조경수 재배가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하니 당장 집안 식구가 먹고살 보리 심을 땅도 없는데 어찌할 것이냐고 부친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아무런 경험도 지식도 없지만 그래도 조경수 재배가 콩, 보리 심는 것 보다는 낫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부친이 출타한 틈을 타 한창 새싹이 돋는 보리밭을 갈아엎고 주목나무, 두충나무, 쥐똥나무 이렇게 3가지를 파종하니 부친은 일주일간이나 식음을 전폐, 자리에 누우시고 이렇게 온 집안을 발각 뒤집어 놓고 시작한 조경수가 이듬해부터 팔리면서 보리농사의 10배 이상 수익을 내고, 이후 매년 인근 지역 농지를 빌려서 한창 유행하던 단풍나무, 느티나무, 주목, 메타세쿼이아등과 관목인 회양목과 철쭉을 매년 10만 본 이상씩 출하하는 강릉 지방에서는 이름난 젊은 총각 조경업자가 되었던다.

### 독학으로 일궈낸 조경수 농장

남다른 기술이나 경험도 없이 조경 관련 학교를 다닌것도 아니고 집안이나 주위에도 조경에 연관된 아는 사람 하나 없어 오로지 각종 서적을 구입하여 혼자 공부하고, 당시만 해도 하루 길인 서울에 가서 종지를 구입 파종하고, 김매고, 굴취 판매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그야말로 독학으로 조경기술을 익혔다. 그러자니 그어려움과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 한다.

집안에서도 보기가 딱하였던가 아니면 자식만은 농사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염원에서인가 여하간 주변의 성화에 못이겨 1980년도에 멀리 산간 오지 지역인 삼척 하장면 단위 농협에 취업, 조경수 재배는 다 접어두고 뒤늦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단다.



아름조경의 보금자리



아름조경의 진경

## 더욱 굳어진 조경업의 꿈

처음부터 내키지 않던 직장 생활에다 고향 떠나 혼자 지내다보니 이 세상에 자신만이 뒤처지고 소외된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조경수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더욱 새로워져 1년만에 그만두고 다시 고향에 내려와 본격적인 조경수 재배에 뛰어들었으며, 이때는 그야말로 조경수로 성공하리라는 일념 하나로 소요 경비를 벌기 위해 상추, 배추 등 채소를 심어 시장에 내다 팔고 돈이 될만한 일은 닦치는대로 밤낮없이 이 악물고 노력한 결과 1986년도에 “한아름농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후 1989년에 “아름조경”으로 개명 확장한 후 드디어 조경수 재배를 시작한지 20년만인 1992년도에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독학으로 일궈 낸 조경인의 꿈을 이뤘다.

지금도 고향마을 처음 심었던 밭에는 고목이 되어가는 주목나무와 어느새 20여m 높이로 훌쩍 자란 메타세쿼이아를 바라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이제는 안계신 부모님 생각 등 갖은 회한에 젖는다 한다.

## 아름조경의 새 보금자리 사기막 농장

아름조경의 본 농장은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라는 곳에 있다.

이곳은 강릉에서 속초, 양양, 주문진 등 북쪽으로 가는 경북 포항부터 금강산 아래 고성까지 동해안 지역을 길게 연결해 주는 유일한 도로인 7번 국도가 사

천면의 중앙을 가로질러 가지만 많은 이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아 대부분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곳이다. 이곳은 강릉 시내와 주문진 항구 중간 지역에 위치하는 고장으로 국도변에 있는 면소재지에서 서쪽으로 3km정도 떨어져 있다. 마을로 가는 길 양편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강릉지역 제일의 곡창지대라는 것이 실감난다. 넓은 들이 끝나고 태백준령 깊은 산골로 들어가는 골짜기 입구에 마을 골목마다 나무로 깎아 만든 장승이며 솟대들이 정겹게 서 있는 관광 체험 마을이 나타난다. 이 마을 서쪽 끝 산자락에 새롭게 조성된 2만여평의 넓은 농장과 멋진 한옥 주택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조경” 사기막 농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 사기막리는 그 옛날 서민용 막사밭을 굽던 사기움막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2000년도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관내 절반이나 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되고 나서 주민 스스로가 농촌을 살리고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 전통 테마 마을인 “해살이” 마을을 만들어 매년 2만여 명이 찾는 이름난 농촌 관광 체험 마을이다.

## 백두대간 아래 그림 같은 농장

농장에 다가서니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수고 15m가 넘는 아릅드리 소나무 조경수와 농장 한가운데 자리한 멋진 한옥이 마치 한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다.



해살이 마을과 아름조경농장



아름조경 양묘장 전경



아름조경 입구

이곳 농장에서 바라보면 때마침 하얀 눈이 덮인 백두대간의 웅장한 자태가 한눈에 보이고 능선 따라 우뚝 우뚝 늘어선 풍력 발전기의 커다란 날개들이 휘적휘적 돌아가고, 그 아래 펼쳐진 깊은 골짜기는 다행히 산불 피해에서 비껴나간 금강송 숲으로 꽉 들어차고 계곡속에는 겨울 가뭄에도 넘쳐나는 맑은 물이 기암괴석 사이를 소리내며 흐르는 그야말로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이라는 것이 절로 실감난다.

아름조경 최칠길 사장은 1971년부터 조경수 재배를 시작하였지만 정작 농장다운 농장은 가져보지 못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부터 주로 남의 토지를 빌려서 작은 면적에도 할 수 있는 묘목 생산 위주로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아니, 단 몇 천평의 농장다운 농장 하나 없이 북으로는 속초·양양부터 남으로는 강릉 옥계면 지역까지 영동지방 여기 저기 크고 작은 포지가 사방에 20여곳이나 되던 것을 5년 전인 2004년도에 우연히 마을에 들렀다가 항상 한곳에 집단화된 농장을 준비해 왔던터에 나무심기도 좋고 거주하기에도 적합한 부락과 연결된 땅으로 강릉이나 주문진까지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산과 바다와 농경지가 어우러진 수려한 풍광에 반해 그간 꿈꿔왔던 전원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곳 땅 7ha(2만여평)를 구입 조경수 재배 30년 만에 처음으로 농장다운 농장을 가지게 되었다.

### 해살이 마을과 아름조경

이곳 강릉 사기막리는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데도 알려지지 않은 그저 조용하기만 한 전형적인 산촌 마을이었던 것이 이름도 생소한 “해살이” 체험 축제라는 테마 마을을 만들어 봄이면 엄나무 새순인 개두릅 축제와 5월 강릉단오제 때는 창포물에 머리감기와 창포비누, 부채, 비녀, 창포염색 등 각종 창포와 관련된 많은 체험과 행사를 함으로서 해마다 여러 방송에 소개되어 이제는 이름난 농촌체험 마을이 되었으며 “해살이”라는 것도 창포를 이 지방에서 부르던 사투리에서 이름 지어진 것이란다. 마을에서는 각종 전통 놀이와 모내기과 고구마 캐기, 감따기 등 농사 체험과 옛날부터 먹던 단오 음식이나 송이 산채 등도 맛볼수 있고 이밖에도 물놀이나 도자기, 솟대 만들기 등 많은 것을 보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시설들이 어느 한곳이 아닌 온 동네가 체험장이 되고 있어 아름조경 역시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농원 겸 멋진 배움의 장이 되고 있다.

## 관광 조경 농장의 꿈을 안고

그는 이 농장을 새로 조성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젊은 시절 어디가서 물어보거나 제대로 견학이라도 할 곳이 없어 답답했던 심정을 잘 알기에 누구나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전시장겸 시범농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로 각처에 심겨져 있던 60여종의 수종 하나 하나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 이식하고, 집 앞에는 파종상과 양묘장을 마련하여 가래나무·개오동나무·매실나무·붉은인동·눈향나무 등 여러 수종을 파종하고, 모과·단풍·라일락·주목·구상나무 등 대목들을 구색 맞추어 집단화 시켜 놓았으며 작은 연못을 두 곳 만들어 자연석 축대로 운치를 살렸고, 집 주변에는 난대수종인 남천과 강릉의 특산인 오죽으로 생울타리를 하는 등 조경수 농장이기보다는 잘 가꾸어진 산속 정원과 같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역시 소나무다. 요즈음 조경수로 가장 각광 받는 하늘 높이 쪽쪽 뺨은 대형 소나무 장송들이 주변 산림의 소나무 숲과 어울려 농장이 몇 배나 넓어 보이고...

이곳 아름답고 사기막 농장은 조경의 멋과 가치를 알리는 휴식과 배움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 시련 속에 얻은 값진 교훈

강릉 지역에는 지금 아름다리 소나무를 굴취한 장송을 취급하는 업자들만 7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만큼 인기 있고 반면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 또한 고가이고 보니 너도나도 뛰어드나 보다. 그 역시 처음 장송에 손대기 시작한 것은 1996년도에 강릉시내 아파트 공사장에서 무상으로 얻고부터란다. 당시 서울 서초동의 현대 서초빌아파트 공사장에 납품 하려던 나무들이 규격미달로 모두다 반품되고 전국을 뒤져 결국 대구에 있는 영동지방산 소나무를 5배나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납품하면서 모양과 색깔 등 역시 소나무는 영동지방 산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고 이후 도로 개설지역이나 개간, 훼손지역을 찾아다니며 많은 양을 수집 이식 한 것이 IMF로 예약되었던 공사장이 모두 중지되고 수집해 놓은 장송들이 하나 둘 죽어 나가면서 5억원의 손실을 본 후로 소나무는 물론 모든 수종의 식재는 일체 하지 않다가 경기가 회복된 2002년부터 그간의 경험을 살려 다시 시작하면서 장송 조

경에 주력한 것이 영동지방 제일의 소나무 조경업자가 되었다.

그가 경험하고 터득한 대형 소나무 이식의 노하우를 알아본다.

첫째 : 굴취는 상품가치 있는 좋은 나무만 한다.

둘째 : 소나무좀 방제를 철저히 한다. 살충제 살포가 제일 중요하다.

셋째 : 이식후 관수가 중요하다. 가뭄이 심할 때는 수시로 관수한다.

넷째 : 여름철 이식은 피한다. 적어도 6월 20일전에 이식한다.

이상 4가지만 지키면 실패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는 또한 특이하게 아무리 큰 소나무라도 지주를 매주지 않는다. 오히려 전지만 잘해주는 것이 지주 설치보다 피해를 줄인다고 한다.

그는 소나무뿐 아니고 모든 조경수 재배에는 직접 만든 발효퇴비 사용이 가장 효과적이라 한다. 자기는 매년 쌀겨와 계분을 섞어 효소를 구입 발효시킨 퇴비를 사용함으로써 나무도 건강하고 윤기있게 잘 자랄 뿐 아니라 모든 병충해에 강건해진다고 한다.

## 강릉의 명품 소나무 도로 조성

예전부터 소나무 도시로 유명한 강릉시에서는 대관령 소나무숲을 비롯한 관내 유명 소나무들을 병충해와 산불·훼손 등으로부터 보존하고 누구나가 알아주는 소나무 도시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소나무 명품화 사업을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나무 묘목단지과 1,000여ha의 금강소나무 숲 육성과 시가지에는 명품 소나무 도로 건설 등 많은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첫해인 지난해에 영동고속도로에서 강릉시 관문인 홍제고가도로 입구지역 약1km의 도로중앙에 근원경 35~60cm, 수고 10~15m의 자연생 아름다리 소나무 111본을 심는 명품도로 조성을 발주받아 한 본도 고사 없이 깔끔하게 활착시켜 강릉의 새로운 명소를 조성함으로써 최칠길 사장은 일약 영동지방은 물론 강원도에서 알아주는 장송 조경의 일인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 강원도 지부장 7년 회원들의 구심점

최칠길 사장은 1990년도에 우리 조경수 협회에 가입한 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강원지부장을 맡아 타 지역에 비해 활동이 저조했던 강원지역 회원들에 대형 소나무 조경수 개발 등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었으며 재임 중 영동지방 회원수를 다섯 배로 확충하였음은 물론 처음 조경수를 시작할 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뼈저리게 겪어 왔던 터라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기술 교류 및 이익 증대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지금도 본회 이사직을 맡아 협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태백산맥에 가로 막혀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영동지방에서 그는 기술 자문은 물론 회원사간 조경수 판매나 공사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조정업계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전통적인 마을 숲이나 학교 또는 유적지 숲 복원에 적극 참여하며 불우 청소년 돕기나 소외된 계층을 돕는 봉사 활동에도 앞장서 나가고 있다.

## 새롭게 출발하는 조경 가족

철없던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시작한 그는 지금 도시 확장으로 새롭게 상권이 형성된 이마트 강릉 지점 옆에 넓은 사무실을 마련 직원 12명을 두고 매년 30~4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금년에는 명품 소나무도로 조경 공사 덕분인가 이미 70억원의 공사를 수주 받아 중견 조경인으로 우뚝 섰으며 6만여 평의 농장에 60여 종류 약80만본의 많은 조경수를 재배하고 이중 자연생 굴취 소나무만 6,000여본 그중에서도 근원경 30cm이상 대형 장송만 500본을 보유한 이름난 소나무 조경 업체로 성장하였지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과 겸손을 좌우명으로 삼아 자연을 벗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지의 조경인이다.

부인 장경자(52세)여사와의 사이에 네명의 자녀를 두고 외아들(26세)은 원예과를 나와 가업을 잇기 위하여 같이 일하고 있으며 항상 꿈꿔왔던 전원생활을 위하여 시내 아파트에서 이곳 산속 사기막 농장으로 이사와 한옥 기와집 향토 방에 예전 방식대로 부들자리를 깔아 놓고 온 식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선망 받는 조경 가족이다. 🌲



아름조경의 언뜻 조경

아름조경에서 시공한 강릉 명품소나무도로